

# 코테

## 알고리즘 3, SQL 1 - 난이도 중 (알고리즘 잘 하는 사람들은 아마 중하?)

### 1. 배열, 반복문, 조건문 으로 특별한 알고리즘 없이도 풀 수 있는 문제

> < > < > < >

위와 같은 배열이 주어지고 현 위치가 주어질 때, 배열을 탈출하기까지 거리는 최단 시간을 구해라

> 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, < 는 왼쪽으로 한 칸 이동

한 칸 이동시에는 1초가 소요되며 지나간 자리는 반대 방향으로 바뀜

> > > > > > 와 같이 되었을 때 탈출할 수 있게 됨

문제가 쉬워서 금방 풀었는데 문제 이해를 잘못 해서 (양쪽으로 탈출 가능인데 한쪽으로만 되는 줄 알았다는 애기 꽤 많았던 것 같음) 시간이 걸렸다는 사람도 있었음

### 2. SW Expert Academy - 상호의 배틀필드 비슷한 유형 + 최단거리 구하기 bfs 로 푸는문제

N\*N 크기의 맵 주어지고

0은 평지

1은 폭탄

2는 장애물

폭탄은 k 만큼의 사정권으로 영향을 미치고 상하좌우 사방으로 미침, 장애물은 통과 불가

현위치 x,y가 주어질 때, 폭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을 구해라 (한 칸 이동시 1초 걸리니까 그냥 간단히 폭탄 영향권이 아닌 위치들 중 현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의 거리 라고 생각하면 됨!!)

### 3. 못풀어서 기억이 안나요,, (눈물)(미안)

### 4. SQL 문제

SELECT 출력할 컬럼명들, count() as 출력할 이름

FROM 테이블 세 개 Join (inner join, outer join 다 썼음)

WHERE (컬럼명) like "%서울특별시%"

이 정도로 풀었던 것 같음 서버쿼리 안 써도 풀리는 문제였던 걸로 기억...!!

+ 이것은 그냥 같이 코테 본 지인이랑 한 추측인데, 똑같이 3솔 했는데 떨어져서  $\pi\pi$  히든 테케에서 틀렸거나,

인성 진단에서 롯데가 추구하는 성향이랑 부합하는지의 여부도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(아 마 도~)

# 면접

면접까지 가면 서류, 인성진단, 코테 결과를 모르는 상태로 진행된다고 하시는데 (제로베이스)  
보통은 수상 경험이나 자소서에 쓴 경험으로 대충 아시는 듯 합니다 ㅎㅎ,,

**인성 면접 (20분)** 면접관 2 : 지원자 2

**역량 면접 (40분)** 면접관 2 : 지원자 1

하루에 면접 두개 다 보고, 저는 시간 20분 40분 짝 채워서 봤어요! 면접 순서는 ㄱㄴㄷ 순이고 시간, 어떤 면접이 더 먼저인지는 랜덤 배정인것 같은데 저는 중간에 쉬는 시간 거의 없이 배정됐고 인성을 먼저 봄

## 인성면접 (20분)

- 1분 자기소개
- 자기소개에서 언급한 프로젝트 질문, 아이디어 질문
  - 인성 면접에서는 기술 질문이 안들어올 줄 알았는데 월로 어떻게 구현했냐고 질문 받음
  - 같이 본 분도 1분 자기소개에서 언급한 프로젝트에 대해 꼬리질문으로 기술 질문 받음
- 코테 난이도
- 왜 롯데인가?
- 성격 장단점, 인생 가치관
  - 단점을 준비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는데, 면접관분이 오늘 준비를 잘 해오신것 같다고 말씀하시서 단점임을 인지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보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대답했더니 빵터지심 (왜,,,)
- 리더 역할 해본 경험 있는지
- 직무와 관련 없는 본인의 장점
- 대학 시절 가장 행복했을 때는 or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경험
-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극복하는지
  - 대답했더니 그런데 갈등이 상사와의 갈등이라면 어떻게 대처하겠냐고도 질문 받음
- 취미
  - 단답으로 하지 말고 흥미를 끌 수 있는 취미로 대답하는게 좋고 직무랑 관련되어있으면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빨래하기 라고 답함 ㅎㅎㅎ,,  
종류별로 분류하고 각 특성에 맞춰 빨래 하는것에 재미를 느낀다. 집에 있다 보면 활동량이 많지 않게 되는데 좋아하는 일(?)을 하면서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취미라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!
- 마지막으로 할 말

+ 보통의 인성 면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질문들, 기술 질문이 들어와도 본인의 경험과 관련된 것 만

## 역량면접 (40분)

- 1분 자기소개
- 지원동기
- 자소서에서 있는 프로젝트 경험 등등에 대해 꼬리의 꼬리를 무는 식으로 질문, 보통 여러 개의 경험을 적으니까 각각의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, 진짜 이 프로젝트를 했는지 발만 담군(?) 것은 아닌지, 찍먹 아닌지 !!!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질문들
  - 무슨 프로젝트였는지, 어떤 역할 맡았는지, 기술 뭐 썼는지, 어떻게 구현했는지 등 프로젝트의 기술과 개발 과정 및 기능 세부질문
  - 저는 졸작으로 수상한 경험을 적었는데, 해당 앱을 스토어에 출시했었다고 하니까 앞에서 바로 검색해보시고 앱 출시 과정도 짧게 질문하심
  - 사용한 기술 관련 cs 지식 질문, 깊이 물어보지는 않지만 개발을 얼마나 했는지 드러날만한 질문들!
  - 팀 프로젝트였다면 몇 명이었고 어떠한 부분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하는지
  - 갈등이 있었는지, 어떻게 극복했는지 질문에서 상황적, 기술적 두개 부분을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
  -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과 극복한 방법
- 롯데가 최근에 주력하는 사업 혹시 아는거 있는지,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
- 리더가 되어 본 경험이 있는지, 팀원들을 어떻게 이끌었는지, 낙오 되는 팀원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는지
- 전공 관련 경험 외에 본인의 추진력(?)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 경험이 있는지
- 성격 장단점 (인데 인성 질문이랑 다르게 전공 관련으로 개발 할 때 본인의 성향이 어떤지 물어보는 느낌)
- 평소 알고리즘 훈련 어떻게 하고 있는지
- 개발 과정에서 모르는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지
  - 교수님이 알려주신대로 API 문서를 주로 참고하는 편이고, 알고리즘 사이트에서 다른 분들의 코드를 참고해서 효율적인 구현 방법을 익히는 편이다 라고 대답
  - 에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는 그냥,, 에러 메시지를 구글에 검색해서 같은 에러로 해결 방안을 질문한 사람의 글을 참고한다고 대답
-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

+ 면접관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셔서 압박 분위기 전혀 아니고, 본인 자소서를 거의 외우다싶이 해서 가는게 좋을 것 같은게 자소서에서 정말 꼼꼼히,, 물어보심

끝!